

빌립보서 개요

저작 시기와 장소: AD. 60-63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쓴 4권의 『옥중서신(獄中書信)』 중 하나이다.

* 『옥중서신(獄中書信)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牧會書信)으로 분류되는 『디모데후서』도 실상은 바울의 제2차 구금(拘禁) 때에 씌여진 옥중서신(獄中書信)이다.

빌립보서가 씌여진 배경 - 삶의 정황(Sitz im Leben)

선교사역(宣敎使役) 과정에서 사도 바울과 가장 관계(關係)가 좋았던 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빌립보 성도(聖徒)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開拓)했던 바울의 선교사역(宣敎使役)을 적극적으로 후원(後援)하였다. 『극심한 가난과 꺾박 속에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지극히 존경(尊敬)하고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바울을 지원(支援)하였다.

(고후 8: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후 8: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 4: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 4: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獻金)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사역을 공식적(公式的)으로 인정(認定)한다는 뜻이었다. 더 나아가서 그 헌금은 투옥(投獄)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정(認定)하고 계시다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message)』였다.

진실로 빌립보의 성도(聖徒)들은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冕旒冠)이었다.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들은 그만큼 바울의 안위(安危)를 진심으로 걱정하였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로마 감옥(監獄)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또 다시 헌금(獻金)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다.

(빌 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그런데 바울을 섬기러 로마에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뜻하지 않게 큰 병에 걸리게 되었다. 바울의 투옥(投獄)에 이어 『에바브로디도』의 중병(重病) 소식까지 빌립보에 전해지자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은 극에 달하였다.

(빌 2: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은 그토록 그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 그의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전달하게 하였다. 동시에 바울은 병에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되돌려 보냈다.

놀랍게도 바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순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인물은 오직 『디모데』 한 명 뿐이었다.

(빌 2:19) 내가 디모테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랍은 너희의 사정을 앞으로 안위(安慰)를 받으려 함이니

(빌 2: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 2: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 2:22) 디모테의 연단(鍊鍛)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빌 2: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빌 2: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軍士)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 2: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 2: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 2: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 1: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였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 1: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

이단의 공격, 핍박과 가난

(빌 3: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빌 3:2, 현대어성경)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위험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악한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고후 8: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빌 1: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빌 1: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 1: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교회 분열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 그러나 빌립보교회의 다툼과 분열을 지나치게 과장(誇張)해서 해석(解釋)할 필요는 없다.

비록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빌립보교회에는 진정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있었다. 복음의 첨병(尖兵) 사도 바울에 대하여도 그들은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자 그들은 극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을 자원(自願)했던 귀한 성도들이었다. 빌립보교회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던 교회였다.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 『전제(관계)』 - 짐승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의식(祭祀儀式)을 말한다.

(고후 8: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후 8: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후 8: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후 8: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고후 8: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분열의 위기(危機)를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특히 강조(強調)한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그들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역설(力說)하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命)하고 있다.

(빌 1: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파스 πᾶς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 1:7) 내가 너희 무리(파스 πᾶς 모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파스 πᾶς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 1: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파스 πᾶς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빌 1: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파스 πᾶς 모두)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파스 πᾶς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2:26) 그가 너희 무리(파스 πᾶς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 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2: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명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는 뜻이다. 곧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권면(勸勉)이다.

(빌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쁨의 책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모두 합해 4장 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 속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이다.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은 모두 극한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다.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 얻는 초월적(超越的)인 기쁨과 평강이다.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치유(治癒)하고, 고난 받는 이들을 위로하며, 빌립보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福音)을 위해 분발할 것을 촉구(促求)하고 있다.

(빌 4: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단순히 그에 대한 연민(憐憫)과 동정(同情)으로 여기지 않았다. 바울은 그것을 복음의 열정(熱情)으로 보았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熱情)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그들의 헌금은 그같은 열정의 표시였다. 이것이 헌금(獻金)의 참된 의미(意味)이다.

빌립보 도시의 특성

(행 16: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행 16:12, 새번역)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 ㉡ 또는 ‘첫째 도시’

빌립보는 BC.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2세가 트라게 지역의 야만족에게서 탈취하여 세운 도시(都市)이다. 빌립보는 BC. 168년에 로마 제국에 편입(編入)되었다.

로마는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little Rome)』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직할(直轄) 식민지였다. 따라서 빌립보 시민들은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사람』이라는 특권(特權) 의식을 가지고 『로마 사람』으로 행세하였다.

(행 16: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행 16: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행 16: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행 16: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행 16: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행 16: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 대

(행 16: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행 16: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행 16: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

빌립보 도시(都市)의 특성(特性)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시민(天國市民)』 성도들에 대한 좋은 유비(類比 analogy)가 된다. 바울은 성도(聖徒)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시민』의 의식을 갖고 『천국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빌 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 도시의 특성을 감안(勘案)하여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양한 『정치적 용어(用語)』, 『군사용어(軍事用語)』, 『운동경기 용어(用語)』를 그림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용어(用語)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생활하라(πολιτεύομαι 폴리티우오마이, 시민으로 행동하다,
to behave as a citizen)

** (빌 3:20) 『시민권(πολίτευμα 폴리티우마)』

군사용어(軍事用語)

(빌 1: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 『진전(進展, προκοπή 프로코페)』 - 『진보(개역)』

미리 도로(道路)를 닦아 로마 군대의 진군(進軍) 행로(行路)를 예비한다는 뜻의 군사용어(軍事用語)이다.

(빌 1: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 『한마음으로 서서/일심(一心)으로 서서(개역)』 - 조금의 틈새도 없이 방패를 밀집(密集)시켜 적(敵)의 공격을 철저히 막고, 힘을 집중(集中)하여 적을 궤멸시키는 군사전략용어(軍事戰略用語)이다.

** 『협력하는 것』 - 『함께 경기하다, 한 팀(team)으로 싸우다』라는 뜻의 운동경기 용어(用語)이다.

(빌 1:23-24)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 『떠나서(ἀναλύω 아날뤼오)』 - 로마 시대의 군사용어(軍事用語)이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장막의 줄을 풀어 텐트(tent)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빌 1: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 『**두려워하다**(πιτύρω 프튀로)』 - 달리는 말이 장애물(障礙物)이나 적군(敵軍)을 만나 두려워서 움찔하다(terrified).

(빌 3: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 『**행할 것이라**(στοιχέω 스토이케오)』 - 군대(軍隊)가 발걸음을 맞추어 행진(行進)하다.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지키시리라**(φρουρέω 프후루레오)』 - 척후병으로 나서다, 파수병으로 보초를 서다, 군병들로 보호(保護)하다, 수비대로 지키다.

운동경기 용어(用語)

(빌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 3:14)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달려가노라**(διώκω 디오코)』 - 『**쫓아가노라**(개역)』 - (사냥의 표적물을) 추적하다(pursue).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 『면류관(Στέφανος 스테파노스)』 도 운동경기 용어(用語)이다.

그리스도 찬송시

Christ Hymn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6-11)